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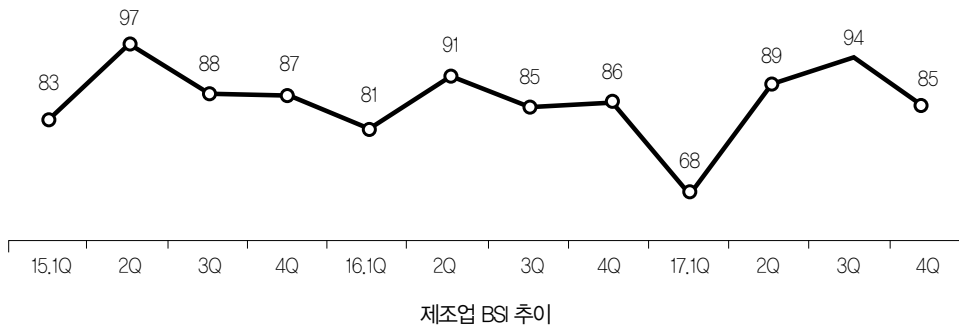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

- 4분기 기업 체감경기 하락 반전, 3분기보다 9포인트 하락한 85

- 대한상의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13분기 연속 기준치(100) 미달
- 통상 마찰, 복핵 리스크 등 불확실성에 회복심리 제동 ... 수출(13P↓)·내수(8P↓) '동시 하락'
- "불확실성 제거와 소비심리 진작 등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책 시급"

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이 다시 나빠졌다. 제조업 체감경기는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2사분기부터 2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불확실성에 막혀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13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전국 2천2백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9포인트 하락한 85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다시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사례 1〉 수출의 절반이 중국으로 나가는 경주의 카시트 제조업체 A사는 요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까 걱정이다. 사드 보복이 가시화된 올해 초를 기점으로 수출이 줄더니 급기야 수주량이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유를 따져 물어도 수입계획이 줄었다는 답변 뿐, 납득 가능한 이유를 듣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상황이 어렵다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반토막 난 수출물량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례 2〉 대전의 수건 제조업체 B사는 1년새 매출이 30% 가량 줄었다. 연 45억 원 규모의 매출이 30억 원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B사는 “수건 수요는 가정과 업소에서 사용하는 실수요와 이벤트용품 수요가 반반인데, 중국 관광객 감소로 숙박업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실수요가 20% 정도 줄었고, 각종 행사가 줄면서 이벤트용품 수요도 3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014년 3분기 이후 3년 3개월째 기준치(10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 북핵 리스크 등 짙어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체감경기 전망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4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91로 직전 분기(104)보다 13포인트 떨어졌으며, 내수부문은 84로 직전 분기(92)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제주(112)와 서울(102)만이 기준치를 넘어섰고, 광주(96), 대전(95), 전북(95), 경기(94), 인천(88), 울산(86), 부산(85), 강원(81), 전남(80), 충북(75), 경남(73), 충남(72), 대구(71), 경북(69) 등 다른 지역들은 모두 기준치에 미달했다. 제주의 경우, 꾸준히 계속되는 건설과 개발, 국내 관광객의 증가세가 지역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화장품’(113)과 ‘IT·가전’(100)만이 기준치를 웃돌았고, ‘기계’(92), ‘정유·석유화학’(85), ‘철강’(84), ‘섬유·의류’(75), ‘자동차·부품’(74) 등은 기준치

에 못 미쳤다.

이종명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높아지는 수출 장벽과 가계부채·내수 부진 심화 등 대내외 불안 요인들 때문에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국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 제거와 소비심리 진작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의 BS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8/28(월)~9/8(금)
- 조사대상 : 전국 제조업체 2,200여 개사
- BSI 지수산출방식

$$\left[\frac{\text{'호전예상' 기업 수} - \text{'악화예상' 기업 수}}{\text{응답기업 수}} \right] \times 100 + 100$$